▌이베로아메리카 제10권 2호 [2008.12] : 57~85

가톨릭교회와사회복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교회의 활동 비교*

김 항 섭**
Kim, Hang-Seob

<Abstract>

Igreja Católica e Obras Sociais: Uma Análise Comparativa entre Igreja Brasileira e Argentina.

Igreja Católica há desenvolvido tradicionalmente as assistências e obras sociais pelos pobres. As Igrejas brasileira e argentina não foram exceptões Especialmente depois da década de 90, quando os ajustes neoliberais foram adoptados e, por conseguente a, a pobreza e as desigualdades sociais foram aprofundadas mais do que nunca, as atividades sociais da Igreja mostraram mais dinâmica, revelando, por outro lado, seus problemas internos.

As idéias e atividades de Cáritas, instituição principal de obras sociais católicas, incluem uma diversidade bem grande, o que às veces provoca algumas confusões, conflitos ou algum esforço de converger essa diversidade.

No caso brasileiro, numa perspectiva da transformção social, tentaram a reconstituir de uma nova maneira essas atividades sociais tradicionais. No caso de Igreja argentina, numa crise de

* 이 논문은 한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신대 종교문화학과 교수
E-mail: kimhs@hs.ac.kr

identidade por causa de uma aliança com o governo militar, tentaram uma nova, independente relação com o governo de Menem, mobilizando a rede de Cáritas para atender os pobres, que são vítimas do ajuste.

Essas mudanças em atividades sociais e relações com o governo, provocaram uma outra mudança num grau de influência social da Igreja. No caso do Brasil, Embora tentou uma atitude flexível e diversificada diante o governo, não conseguiram sair de uma tradição crítica durante governo militar e conseguentemente, suas influências sociais ficaram mais reduzidas.

No caso argentino, no governo de Menem, a Igreja tentou uma relação independente, desenvolvou as atividades sociais de uma forma tradicional mas bem ampliada, o que resultou numa recuperação considerável da credibilidade social, perdida anteriormente.

[Key Words: Igreja Católica/ Obras Sociais/ Brasil/
Argentina/ Crise Económica]
[: / / / /]

1. 이끄는 글

사회복지 활동은 “소외된 개인이나 집단을 도우려는 상부상조의 정신”(종교사회복지포럼, 14)에 기반을 둔다. 따라서 이 활동은 인간의 보편적인 해탈 또는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의 활동에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그리스도교는 역사적으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중 계명에 바탕을 두고, 가난한 이들과 '보잘 것 없는 이들'을 위한 배려와 관심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 구호나 복지 활동에 관여해 왔다.

그리스도교의 이러한 활동은 특히 90년대 들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확산, 심화되면서 더욱 활성화된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그로 인한 경제 위기는 대량 실업, 가난과 사회적 불평등 심화, 가족 해체 등을 야기하고, 그에 따라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가 급증한다.

그러나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반면, 그 공급은 이전보다 더 힘들어지고 복잡한 양상을 띤다.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의 주요한 담당자였던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작은 정부론'의 기치 하에, 사회구호와 복지활동을 민간에 위탁하는 등 개입을 축소하고, 가족과 기업의 복지능력 또한 크게 약화된다(종교사회복지포럼, 16). 그에 따라 종교 단체를 비롯한 민간 사회복지 단체나 시설들의 사회복지 활동이 더욱 더 활성화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톨릭교회는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 구호와 복지 망을 보다 더 확충, 심화하면서 경제 위기와 그에 따른 희생자들에 대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현실 속에서 가톨릭교회의 사회복지프로그램도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 외에도, 정부 사업을 위탁하거나, 정부나 기업, 또는 다른 민간단체들과 공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된다. 이렇듯 가톨릭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이 보다 더 확산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교회가 국가나 시민사회와 맺고 있는 관계, 그리고 그것들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일정한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은 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도입했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가톨릭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을 비교 분석하려는 것이다. 아르헨티나 가톨릭교회의 사회복지활동 자체를 다루는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브라질의 경우도 그리 많지 않고, 내용에 있어서도 가톨릭교회의 복지 활동의 역사나 내용, 이념이나 신학적 근거, 또는 복지 활동을 둘러싼 이념적 갈등과 대립 등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교회사적, 신학적 접근들(Angelo Ademir Mezzari, Fátima Giorlano, José Magalhães de Souza, Claudia Neves da Silva 등)이다. 더구나 이 두 나라를 비교 연구한 논문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은 빈약한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보완하기 위해, 가톨릭교회나 단체의 활동 보고서나 기타 자료, 언론보도 등을 활용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와 자료를 바탕으로, 두 나라 가톨릭교회의 복지 활동을 비교 분석하면서, 이 활동에 나타나는 몇 가지 특성과 변화, 그리고 그것이 교회와 국가나 사회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고 한다.

2.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와 가톨릭교회

가톨릭교회의 사회복지 활동은 그 교회가 속한 나라의 제반 사정이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비교 분석에 앞서, 두 나라 교회 안팎의 상황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우선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에 비해 영토가 더 넓고, 인구나 국내총생산(GDP)도 더 많다. 브라질 영토는 8,514,877㎢이고, 2000년 기준 총인구는 169,799,170명이고, 국내총생산은 5998억 달러이다(Instituto Brasileiro de Geografia e Estatística). 이에 반해 아르헨티나 영토는 2,780,403㎢이고, 총인구는 2001년 기준 36,260,130명이고, 국내총생산은 2000년 기준

2842억 달러이다(InstitutoNacionalde Estadisticosy Censos).

그러나 한 나라의 사회 복지 활동이나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공급자의 측면에서 보면 경제적 요인이나 이념적, 정책적 요인이 크게 작용할 것이다(권혁용/신혜현, 140). 또한 수요자의 상황이나 조건도 이러한 활동이나 수준에 변수로 기능할 것이고, 따라서 실업률, 빈곤수준, 사회적 불평등 등의 요인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급적, 수요적 측면에서 볼 때, 두 나라의 상황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1인당 GDP는 아르헨티나가 91년 4월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이어 92년 1월 화폐개혁을 하면서, 92년 기준 1인당 GDP가 6,845달러로 부풀려지면서, 당시 브라질의 2,605달러와 큰 격차를 보인다. 그러나 99년부터 아르헨티나의 1인당 GDP가 하락하다가, 결국 2002년을 기점으로 아르헨티나 2,681달러, 브라질 2,630달러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90년대 사회복지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를 낳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도입한 시기도 이 두 나라가 유사하다. 브라질의 경우 1980년대 중반 민정 이양 이후 다양한 충격요법을 도입하다가, 1990년에 집권한 꼴로르 대통령(FernandoCollorde Mello,1990-1992)에 의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그러나 꼴로르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 물러나면서 일시 중단되었다가, 까르도주 대통령(Fernando Henrique Cardoso, 1995-2003) 하에 본격적으로 가동된다(김항섭 2003, 136-7). 반면에 아르헨티나는 메넴 정부(Carlos Menem, 1989-1999)하에서 대대적인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이러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율도, 1990년 기준 아르헨티나의 실업률이 6.3%, 브라질의 실업률이 7.2%이고, 2000년 기준 아르헨티나가 14,7%, 브라질이 11.0%로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http://www.ibge.org.br; http://www.theodora.com).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낳은 또 다른 결과는 빈곤의 심화라 할 수

있다. 빈곤선 이하의 인구(Populationbelowincomepovertyline) 비율로 보면 아르헨티나가 브라질에 비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브라질이 1990년에 17.4%인데 반해 아르헨티나는 1991년에 25.5%였다(http://www.worldbank.org). 1998년에는 브라질이 32.7%, 아르헨티나가 36%로 늘어났고(http://www.ibge.org.br; http://www.theodora.com), 2004년 현재 브라질은 33.5%, 아르헨티나는 44.3%가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있다(http://www.unicef.org).

이와 같이, 두 나라의 경제적 수준이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도입된 시기나 내용,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위기의 여러 측면들을 고려할 때, 대체적으로 유사한 양상과 내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가톨릭교회가 두 나라에 유입되고 역사적으로 전개되는 과정도 유사한 형태로 이뤄진다. 주지하다시피,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가톨릭교회는 각각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화 과정에서 이식되어, 식민지 통치의 주요한 고리로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이후 독립, 그리고 공화정 수립 등 역사적 과정에서도 유사한 행보를 걸어왔다.

그러나 두 나라의 가톨릭교회는 각각 1950년대와 1960년대부터 군사독재와 직면하게 되면서, 특히 군사정권에 의한 가혹한 인권탄압과 비민주적 행태들에 대해 상이한 태도와 행보를 보였다. 아르헨티나 교회의 경우 군사정권과 밀착되어, 이를 정당화하고, 심지어 군사 정권의 '추악한 전쟁'을 묵인하거나 이에 가담하는 등 라틴 아메리카 가톨릭교회들 중에서도 보수적인 노선을 대표해 왔다.

이와 달리 브라질 교회는 교계의 진보적인 노선과 더불어 탄탄한 대중적 토대를 가진 기초공동체와 민중 사목을 중심으로 노동자, 농민, 빈민들의 생존권 요구에 귀 기울이고, 사회의 민주화와 인권 옹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등 라틴 아메리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

보적인 교회 활동의 전형으로 간주되어 왔다.

요약하면, 두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이나 상황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가톨릭교회의 이념이나 실천에 있어서는, 특히 1950년대와 196년대 이후 서로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2) 가톨릭교회의사회복지활동과까리따스

가톨릭교회는 그 초기부터 가난한 이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구호와 복지, 정의구현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왔고, 이러한 활동들은 나중에 서구 사회 일반의 전문적인 사회복지 활동을 태동시키는 데 일정한 기여를 했다(종교사회복지포럼, 22-24).

초기 교회 문헌, 특히 사도행전, 서간, 묵시록은 하나같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초대 교회의 관심을 잘 보여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가정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집'이었다(ConferênciaNacionaldos Bisposdo Brasil,18). 물론 초대 그리스도교회는 사회 질서에 대한 일정한 판단이나 개입보다는, 본래적 의미의 종교운동이었으나, 사회체제가 빚어낸 일정한 부정적인 결과들과 대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대면에서, 교회는 하느님과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중적 계명에서 출발하여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을 위한 관심과 배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 하느님이 무보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신자들도 하느님이 사람을 찾으신 같은 동기에서 사람을 사랑할 것이며 그 사랑을 가져 사람에게 마음을 써야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나라가 도래한 표시로써 모든 번뇌와 병을 고쳐 주시며 모든 도시와 시골을 돌아다니신 것과 같이(마태9, 35 이하; 사도10, 38 참조) 교회도 그 자녀들을 통하여 모든 자기의 사람들

> 특히 가난한 사람들, 고통 받는 사람들과 결부되어 그들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애쓰고 있는 것이다.(2고린12, 15 참조)(제2차 바티칸 공의회, 12항).

그러나 초대 그리스도교회는 이러한 가난과 고통이라는 현실 앞에서, 사회적 개혁이나 구조적 변혁을 지향하기 보다는, 구제 사업의 형태를 취했다. 이것이 교회가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었다(트뢸취, 172-173).로마제국 하에서 그리스도교가 공인된 이후, 주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문제 등 사회복지 전반에 관해서 공적이고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 받고, 가난한 사람들의 보호자로 인정받았다(트뢸취, 180).이러한 맥락에서 니케아 공의회는 제국의 모든 도시에 병원을 세울 것을 규정하고. 칼케돈 공의회도 여행자를 위한 휴게소, 구빈원, 고아원 등을 잘 운영하도록 의결하였다(커닝엄, 74).

이러한 활동들은 처음에는 이웃사랑에 입각한 타인 원조 또는 구제 수단, 남을 돕는 수단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공적을 쌓기 위한 선행, 속죄하는 행위, 또는 연옥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수단, 즉 자기 구원의 수단으로 변질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때까지 '문명의 아주 중요한 대행기관'으로서 지속되었다(트뢸취, 176-177).

근대에 와서, 특히 프랑스 혁명 이후 국가와 교회의 분리 또는 대립이 가속화되면서, 교회는 국가와의 직접적인 관계가 아닌, 학교, 병원, 자선 사업 등을 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방향 전환과 함께, 구호나 자선 사업 등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한 교회 활동도 크게 증가한다(Mezzari2005, 483-4).

가톨릭교회의 이러한 사회복지활동이 증가하면서, 교회의 여러 단위에서 분산적으로 이뤄지던 다양한 활동들을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유기적인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고, 그러한 맥락에서 '까리따스'(Cáritas)가

등장한다. 국가 차원에서 최초의 까리따스는 1897년 독일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교황 비오 12세의 지시로 몬티니 추기경(GiovanniMontini,후에 교황 바오로 6세)은 1950년 사회 구호와 복지의 영역 안에서 교회가 전통적으로 가졌던 모든 이니셔티브와 사업을 고무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 국제 까리따스(CaritasInternationalis)를 창립한다(CáritasArgentina2).

오늘날 국제 까리따스는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가진, 인도주의적 구제, 발전과 사회봉사(socialservice)기구 중의 하나이다. 현재 162개국에 까리따스가 조직되어 있고, 48만 명에 달하는 유급 직원과 58만 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200여국에 걸쳐 연간 2,400만여 명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http://www.caritas.org).

까리따스의 활동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적인 가치에서 출발한다. 첫째, 세계에서 가장 궁핍한 이들을 위한 활동이어야 한다. 둘째, 정의에 대한 존중으로 나아가야 한다. 셋째, 가난한 이들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자기 발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CáritasArgentina,2-3).

여기서 까리따스의 이념적 지향에는 긴급 구호나 사회 복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 정의의 관점까지 어우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념적 지향의 다양한 스펙트럼은 해당 교구나 나라에 따라 구체적인 실천 지향이나 초점에 있어 차이를 드러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갈등을 빚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성 때문에 논자에 따라서, 까리따스의 활동을 몇 가지 형태로 나눠 고찰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메자리(Mezzari)는 보수적인 전통적 모델, 보수적인 근대적 모델, 진보적인 근대적 모델로 구분하고(Mezzari2005, 493-4), 스트링기니(Stringhini)는 구호적 모델, 계발적 모델(promocional)해방적 모델(Stringhini,95)로 나누기도 한다.

3. 브라질 가톨릭교회의 사회복지활동과 까리따스

1) 가톨릭교회와사회복지활동

다른 나라의 가톨릭교회와 마찬가지로, 브라질 가톨릭교회의 사회복지 활동도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 교회는 식민지 시대부터 공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학교, 병원, 고아원, 구호소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 구호와 복지 활동을 펼쳐왔다. 물론 이 시대의 사회 구호나 복지 활동이 기본적으로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고 영속화하려는 맥락에서, 가난한 이들이나 소외된 이들의 필요나 요구 자체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이들의 사회적 불만이나 저항을 완화하고 무마하려고 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식민지 시대의 사회 복지 활동은 주로 수도회, '형제회'(Irmandade)를 중심으로 이뤄졌고(Stringhini,95), 주된 구호 대상은 고아, 병자, 가난한 자, 범죄자 등이었다. 이러한 활동에서 특히 형제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Barros,17). 14, 15세기경에 유럽에서 태동해 식민지 시대 때 라틴아메리카에 건너온 형제회는 성인 숭배를 중심으로 모인 가톨릭 신자들의 자율적인 모임이었지만, 성인 숭배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자선 활동에도 종사했다. 브라질의 경우 이 형제회는 식민지 시대 동안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고, 제국 시대에도 여전히 그 활력을 유지했다. 비록 공화국 시대에 와서 그 규모와 중요성에서 다소 떨어졌을지라도, 일부 형제회는 오늘날까지도 그 활력을 유지하고 있다(Chrispim,1; Oliveira참조).

60년대 이후 군사 독재 하에서 사회 제반 상황들이 악화되면서, 교회의 사회사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러한 상황은 80년대 민정 이양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Mezzari2005,484-5). 1990년대에 들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이러한 구조조정은 사회적 불평등과 가난을 더욱 더 심화시킨다. 이에 가톨릭교회는 다양한 차원에서 구조조정의 희생자들과 함께 하는 활동을 펼친다.

먼저 주교회의(Conferência Nacional dos Bispos do Brasil, CNBB) 차원에서 보면, '비참과 가난 극복을 위한 연대 활동'을 전국적인 규모로 조직하여, 각 교구, 본당, 또는 공동체별로 '연대 활동 팀'을 구성하여 이러한 희생자들과 가난한 이들을 구호하는 활동을 펼친다. 그러나 이러한 연대 활동은 음식이나 돈을 모아 가난한 이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등 직접 구호하는 활동에 그치지 않고, 공동 텃밭 경작을 마련하여 공동 관리, 경작하거나, 길거리 아이들을 돌보거나, 직업 교육 또는 알선을 하거나, 문맹자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등 그 활동의 내용과 폭이 다양하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펼치면서, 주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 시민사회, 기업 등과 협력을 강화하거나 지원을 받기도 한다(김항섭 2005b, 219-220).

주교회의 차원의 이러한 활동 방향은 교회의 기본 단위인 본당 차원에서도 구체적으로 수용되고 실천된다. 2004년 벨루 오리존떼(Belo Horizonte)교구가 관내 257개 본당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크게 다섯 가지 유형의 활동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구호, 시민의식과 정치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 노동과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 사회적 취약 집단들에 대한 지원,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지원 활동 등이 바로 그것이다(Arquidiocese de Belo Horizonte, 1).

본당 차원에서 가장 많이 이뤄지는 활동을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식량 나눔, 어린이와 청소년 관련 활동, 노인 지원 프로그램, 알코올 중독자 지원, 심리 프로그램, 성인 문맹 퇴치 교육, 건강 관련 프로그램 등의 순서이다(Arquidiocese de Belo Horizonte, 2-4). 또 활동의 범주별로 순위

를 매기면, 긴급 구호, 시민의식과 정치행동을 위한 프로그램, 가족, 어린이, 청소년, 여성과 노인 지원 활동, 직업 훈련과 일자리와 소득 증대 프로그램, (흑인 등) 사회적 소수자 지원, 육체적 정신적 건강 프로그램 등의 순이다(Arquidiocese de Belo Horizonte,4).

교구나 본당 차원에서의 이러한 활동 외에도 빈첸시오회(Sociedade de São Vincete de Paulo)를 비롯한 수도회 단위의 활동이 있고, 또한 다양한 형태의 특수 사목들을 통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구호와 복지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사목 활동의 예를 들면, 미성년자 사목, 노숙자 사목, 보건 사목, 교정 사목, 노인 사목, 에이즈 사목, 어린이 사목 등이 있다(Altemeyer Júnior, 533-537).

2) 까리따스의 활동

그러나 이러한 사회 구호와 복지 활동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여느 가톨릭교회와 마찬가지로 까리따스이다. 1955년 당시 국제까리따스(Cáritas Internationalis) 총재인 바이어 몬시뇰(Mons. Bayer)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라틴아메리카주교회의(Conferência Episcopal Latinoamericana, CELAM) 총회에 참석하여, 주교들에 까리따스 창립을 권고했고, 이에 따라 라틴 아메리카 각국에서 까리따스가 창립되기 시작한다(http://www.caritas.org.ar).

브라질 주교회의도 이 권고를 받아들여, 1956년 주교회의 산하에 까리따스를 창립했다. 현재 브라질 까리따스는 10개 지역 사무소, 170개 회원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1년 예산은 1,600만 달러이고, 500명에 약간 못 미치는 유급 직원과 1천여 명이 넘는 자원봉사가 있으며, 연간 50여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http://www.caritas.org).

브라질 까리따스의 2005년도 활동보고서를 보면, 활동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Cáritas Brasileira 2005, 5-6). 첫째,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증진하는 일이다. 이 활동에는 유아, 어린이, 청소년의 권익을 옹호하고 증진하는 것, 식량, 영양, 물, 에너지를 보장하고 생물안보(biossegurança)를 확보하는 것, 위험에 처하거나 긴급 상황에 놓인 사회 집단 – 예를 들면 노숙자들 – 을 돌보고 그 권익을 증진하는 것, 농지개혁 지원, 에이즈 환자 지원 등이 포함된다.
둘째, 시민 동원과 민주적 관계를 촉진하는 일이다. 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정책과 관련하여 시민들을 동원하고 시민사회 차원에서 견제를 모색하는 것이다. 셋째, 연대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반건조지역 주민(semi-árido)지원, 연대적인 민중 경제 지원, (재활용품들을 수집하는) 넝마주이 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러한 활동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http://www.caritasbrasileira.org), 먼저, 도시 빈곤 관련 활동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5,700여명의 넝마주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까리따스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건강관리나 위생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장갑, 보안경 등 보호 장비를 지원하며, 생산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적, 경영적 지원을 제공한다.

둘째, 반건조지역의 65,000여명의 주민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까리따스는 이 사업에서 연대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두고, 빗물 탱크, 우물, 댐 건설 사업, 그리고 가족 영농, 관개, 작은 동물 사육 등과 관련하여 지원한다.

셋째, 연대적인 민중 경제 프로젝트에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일이다. 이 사업은 사회적 배제가 극심한 지역에서 집단적, 민중적 조직에 기반을 둔 민주적 참여적 경영을 장려함으로써, 가족 소득 증대를 촉진하고자 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1만여 명의 노동자들(200개 그룹)이 협동적 생산, 마케팅과 소비 네트워크 강

화 관련하여 지원을 받았다.

넷째, 환경 재앙이나 긴급 상황과 관련하여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다섯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시민 의식과 권리를 자각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36,000명 이상의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여섯째, 의사결정과 운영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동원 활동에 있어서도 까리따스의 근본적 가치는 참여 민주주의이라는 전제 하에, 공동체, 지역, 국가적 차원에서 정치적 참여와 공적인 논쟁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일곱째, 취약한 공동체들이 지속가능한 영농을 촉진함으로써 식생활을 개선하고, 토지, 전기, 생산자원 등을 원활히 확보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약 2만 명의 농민 가족들이 혜택을 받았다.

브라질 까리따스의 이러한 활동들을 살펴보면, 다른 나라의 교회들과 달리, 전통적인 사회 구호나 복지 활동에 머물지 않고, 이러한 활동들을 가난과 비참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 아래 새롭게 재편하면서 독창적인 제안과 활동들을 벌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까리따스는 희생자들이나 가난한 이들을 단순한 구호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풀어가는 주체로 받아들이며, 문제의 결과를 뒤치다꺼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해소하려는 노력들을 조직하고 지원한다. 그 적절한 예가 벨루 오리존떼(BeloHorizonte)시의 '종이와 재활용품 협회'(ASMARE)일 것이다.

종이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넝마주이들의 활동은 처음에는 사회적 편견에 시달렸고,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직업적 역할도 인정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남몰래 일하거나 부랑자 취급을 받으면서 늘 당국과 경찰의 감시를 받았다. 이에 까리따스는 그들이 존엄성을 회복하고

보다 나은 노동 조건을 마련하며 더 이상 숨어 일하지 않도록, 1990년 협회를 구성하도록 격려, 지원하였다. 이 협회는 까리따스의 지원으로 현재 종이, 플라스틱, 알루미늄, 고철, 유리 등을 재생할 수 있는 세 개의 큰 공장을 갖추고 있고, 브라질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최저 임금에 못 미치는 소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협회 회원들 중 54%가 최저 임금 2배 미만, 40%가 최저 임금 2-4배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Souza, J., 11-12).

까리따스의 이러한 활동은 전통적인 구호주의적 활동들이 갖는 문제점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즉 구호주의적 활동이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종속을 심화하며, 가난한 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방해할 뿐만 아니라, 관계 당국의 의무를 방기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Cáritas Brasileira 2003, 10-11). 그렇다고 구호주의적 활동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사업과 활동은 나름대로 교육적이고 문제 제기적 효과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변혁과정의 시작이라고 본다(Mezzari 2005, 485).

그러나 까리따스의 이러한 전망이 개별 사회 구호나 복지 단체의 활동에도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많은 단체들이 눈물샘을 자극하는 구호 사업을 펼치고 있고, 이러한 활동들은 사회적 불평등의 '추하고 불쾌한' 측면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사이의 - 동등한 자들 사이가 아닌 - 연대에 바탕을 둔다(Silva, C., 337-38).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까리따스는 어느 나라의 까리따스보다도 사회 변혁적 전망 아래 가난한 이들을 주체로 받아들이는 다양한 구호나 복지 활동을 꾸리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까리따스의 이러한 활동은 브라질의 사회복지 일반에서 뚜렷한 자기 목소리를 가지면서 나름대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2002년 첫 선을 보

인, 상파울루 시의 사회복지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민관 합동 기구인 '사회구호포럼'(Forum Municipal de Assistência Social)의 경우, 그 위원장에 메자리(Angelo Ademir Mezzari) 신부가 임명되어(Mezzari 2005, 489, nota 25), 구호 활동을 민주화하고, 수혜자의 참여를 확대한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통해 사회복지에 새로운 범주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는 공적인 특성을 갖는데, 그것은 공공기관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봉사, 그리고 사회에 의한 통제에 그 공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Mezzari 2005, 489).

또한 80년대 민정이양과 9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적어도 사회복지 영역에서 가톨릭교회나 까리따스의 활동 방식도 다양화되었다. 무엇보다도 군사정권 하에서 공권력과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해 왔으나, 80년대 이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공동사업이나 위탁 사업 등을 통해 공권력과의 관계 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다. 특히 2000년에 들어와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정부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책적 지향에 따라 다소 굴곡이 있지만, 이러한 변화는 가속화된다.

상파울루 시의 경우 전체 사업의 약 40%정도를 가톨릭교회가 담당하고 있고, 주로 탁아소, 청소년시설, 양로원, 직업훈련소, 장애인시설, 이주노동자, 노숙자, 에이즈환자, 여성 관련 시설 등으로 이뤄져 있다(Mezzari 2005, 491). 그 중 많은 시설들이 정부의 위탁사업이나, 또는 공공기관이나 기업과의 공동사업이다(Giorlano, 31-32, 39-40).

공공기관이나 다른 민간단체와의 협력 또는 연계는 재화, 자원, 프로그램, 구호 서비스를 최적화하기 위해 아주 중요하다(Mezzari 2005, 499). 그러나 이것은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조 하에서 공권력의 책임 회피라는 문제를 야기한다. 80, 90년대 신자유주의적 정부는 '구호의 민영화'(privatizaçao de assistência)(Netto) 라는 기치 하에, 사회 영역에서의 활동

공간, 사회 정책 관련 예산과 인원을 감축함으로써, 배제된 이들에 대한 책임을 시민사회에 전가했다. 따라서 까리따스를 비롯한 가톨릭교회의 활동은 자칫 국가의 직무 유기를 정당화해줄 우려가 있다(Silva,C., 342-43).

4. 아르헨티나 가톨릭교회의 사회복지활동과 까리따스

1) 가톨릭교회와사회복지활동

아르헨티나 가톨릭교회의 사회복지활동도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식민지 시대부터 1960,70년대 군사정권에 이르기까지 브라질과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는 활동 양상이나 내용을 전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상술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한 가지, 군사정권 하에서 공권력과 지나치게 밀착됨으로써, 80년대 민정 이양 이후, 이른바 '더러운 전쟁'의 '공범'으로 낙인찍히고, 여론의 지탄을 받게 되며, 사회적 신뢰를 크게 상실한다. 이는 이후 아르헨티나 가톨릭교회의 행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아르헨티나에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1989년에 취임한 메넴 정부(CarlosMenem)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주교회의(Conferencia Episcopal Argentina,CEA)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기보다는,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민정 이양 이후 사회적 신뢰가 추락하면서 상실한, 도덕, 성, 교육 등 가톨릭교회의 전통적인 영역과 관련된 특권적 지위를 회복하는데 주력한다(김항섭 2005a,116). 교계 내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산발적이고 지엽적이었다.

그러나 메넴 정부 1기(1989-1995) 후반으로 넘어오면서 정부 내에 부패

가 만연하고, 구조조정의 결과 가난과 실업이 증가하면서 주교들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다(김항섭 2005a, 117-118). 주교들은 실업이 점증하고 기본적 필요 충족도 못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경고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사회적 불안도 증대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주교단은 이러한 위기의 원인을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과 정부 내 만연한 부정부패에 찾으면서도, 이 두 가지 원인보다 더 근저에 있는 것은 개인주의, 소비주의, 물질주의적 경향, 사회의 기본 세포로서의 가족의 역할의 상대화 등 도덕적 문제라고 주장한다(김항섭 2005a, 118-119). 교회는 이것들을 교회의 근본 원리에 거슬리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한 희생자들과 함께 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펼친다.

2) 까리따스의 활동

사회 구호와 복지에 관한 아르헨티나 교회의 실천적 활동은 주교회의 산하 까리따스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아르헨티나 까리따스는 1956년에 창립되었고, 전국 8개 지역, 전국 64개 교구, 1968개 본당, 1403개 공소(capillas)나 선교센터(centros misionales)에 걸쳐,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한다(CáritasArgentina,3). 또한 32,0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일하고 있고, 그 수혜자는 연간 약 3백만 명이다(http://www.caritas.org). 이처럼 까리따스는 아르헨티나 사회 내에서 가장 광범위한 사회복지망을 구성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까리따스의 활동 방향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http://www.caritas.org.ar). 첫 번째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자연 재해의 희생자들에 대한 긴급 구호 프로그램이고, 두 번째는 어린이와 청소년, 실업극복, 주거, 토지 문제와 관련된 인간 계발(promociónhumana)과 발전 프로그램이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사회경제적 또는 자연적 긴급 상황으로 위험에 처하거나, 극단적인 궁핍 상태에 있거나, 적절한 돌봄 없이 방치된 개인, 가족, 공동체를 대상으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 도움은 무료급식, 의약품, 의류나 신발류, 건축자재, 책과 학용품 등을 제공하는 것이고,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임시 거처, 야간 피난 시설, 법률적인 자문 등이 있다.

이러한 긴급 구호는 단지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희생자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긴급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들, 그리고 사후에 평가하는 작업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까지 포함한다. 예를 들면, 사전 조치로 유사시 인적 물적 손실을 예방, 완화하거나, 또는 최소한으로 줄일 목적으로, 자체 팀을 구성해 재난 관련 공공기관이나 여타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통, 커뮤니케이션, 기간 시설들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한다. 또한 사후에는 재앙이 가져온 피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위기의 자기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해 해당 공동체의 조직 과정을 돕고, 기술적 지원과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두 번째는 인간 계발과 발전 프로그램이다. 이는 구호의 손길을 받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고 바꾸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관련 개인이나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들을 말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먼저 실업 극복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고용 불안의 상황에 있는 주민들의 고용과 소득 증대, 지역 공동체의 자기관리 과정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일자리 주선, 소규모 창업 지원, 직업교육 등을 실시한다. 주거 관련 프로그램은 도시와 농촌의 취약 지역에 살고 있는 가족들의 주거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기술과 금융을 지원하고, 해당 공동체의 조직 과정을 돕는다. 이 프로그램은

1998년 북동부와 해안 지역을 강타한 홍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희망으로 재건하자'(Reconstruir con Esperanza) 프로그램에서 발단이 되어, 관련 단체와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1,300개의 주거(그 중 500개는 건설중)건설을 돕고 있다.

또한 토지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가난한 주민들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공동체적 조직 과정을 통해 토지를 지속가능한 형태로 사용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토지를 점거하고 있는 공동체가 토지를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이 문제에 관하여 국가와 시민 사회의 여론을 조성하며, 구체적인 입법 청원 활동에도 관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2년 까리따스가 벌인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보면(Cáritas Argentina 5-6), 첫째, 인도주의적 원조 프로그램으로, 그야말로 사회적 자연적 긴급 상황 아래서, 취약한 상황에 놓이거나 생존을 위협받는 가족들에게 식량, 의약품 등을 지원하는 활동이다. 둘째, 학교 지원 프로그램으로, 교육의 질을 강화하고 유지할 목적으로, 학교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학부모나 학교와 공동행동을 조직하며, 자퇴나 중도 포기 학생들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2002년 당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구들은 산 미겔(San Miguel)교구를 비롯하여 10개 교구이다.

셋째, 노동 관련 프로그램으로 마이크로 크레딧, 소규모 창업(micro-emprendimientos)직업 훈련 등을 통하여 불안정한 노동 조건에 있는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강화하려는 것이다. 2002년 당시 꼬르도바(Córdoba)교구를 비롯하여 21개 교구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넷째, 아르헨티나 북동부 지역의 인간 계발과 발전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포르모사(Formosa)교구를 비롯하여 이 지역 9개 교구 팀들이 연대하여, 지속가능하고 연대적인 발전의 맥락 안에서 인간 계발 과정을 격려하고 동

반하기 위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공동체 스스로 건강을 돌보고, 모든 이들을 위한 교육의 질을 확보하며, 지역에서 발생하는 기후 관련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증진시키려는 것이다.

다섯째, 아르헨티나 북서부 지역의 어린이와 공동체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이다. 아냐뚜야(Añatuya)교구를 비롯하여 9개 교구가 참여했던,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무료 급식을 조직하여, 취약 가정의 어린이들과 그 가족을 돌보고, 이 급식소를 점차적으로 종합복지센터(Centros Comunitarios de Atención Integral)로 발전시켜, 해당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이밖에도 홍수, 냉해 또는 다른 기후 관련 긴급 상황의 경우 직접적인 원조를 제공하고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고, 지역의 보건, 유아, 교육, 긴급 상황, 소규모 창업, 주거 등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213개의 재정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까리따스의 이러한 활동은, 특히 1989년 경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그로 인해 가난한 이들의 삶이 더욱 더 열악한 처지에 놓이면서, 그리고 특히 메넴 정부 1기 후반에 들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 실업과 빈곤의 증가가 크게 사회문제화 되면서, 그 활동 영역이 더욱 더 확대, 강화되었다(김항섭 2005a,121-126).

아르헨티나 까리따스도 전통적인 사회 구호 활동에 그치지 않고, 실업과 가난의 구조적 원인으로서 경제 모델과 정책을 지목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교회 안에서 주도적으로 전개해 나간다. 특히 1999년 호르헤 까사레또(Jorge Casaretto) 주교(Isidro 교구)가 까리따스의 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까리따스는 사회 구호나 비판을 넘어서서, 정부의 사회정책 입안 과정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한다(Clarín,

1999/11/16).

사회복지활동과 관련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관계는 1999년 대선에서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새로 취임한 페르난도 델 라 루아(Fernando de la Rúa) 대통령은 취임 직후 까사레또 주교를 직접 방문하여 사회 구호와 복지 활동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사회 구호와 복지를 담당하는 메이히데(Graciela Fernández Meijide) 사회 발전(Desarrollo Social)장관도 장관 지명을 받은 뒤, 먼저 까리따스를 찾아 도움을 호소했다(김항섭 2005a, 125).

까리따스의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아르헨티나 교회는 군사정권과의 밀착관계로 인한 상실한 사회적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하고, 사회적 영향력도 크게 확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 까리따스는 기본적으로 이전과 같은 것이다. 다만 과거에 비해 오늘날 훨씬 더 두각을 드러낸다. 가톨릭신자이기도 한 일반 대중들은 전통적으로 크게 세 가지 기관, 즉 국가, 노동, 교회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오늘날 앞의 두 가지는 사라지고, 따라서 사제의 로만 칼라가 다시 권위를 갖게 되었다(Clarín, 1998/7/28).

5. 비교 분석

가톨릭교회는 전통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사회 구호와 복지 활동을 벌여 왔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가톨릭교회 역시 예외가 아니고, 특히 1990년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그에 따라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이러한 활동들을 더욱 더 활기차고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성들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까리따스에서 표방하는 가톨릭 사회복지 이념이나 활동은 즉각적인 사회구호부터 사회구조적 변혁의 관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과 활동을 포괄한다. 따라서 해당 나라나 교구에 따라 서로 다른 복지활동을 전개할 수 있고, 때때로 이러한 다양성이 혼란이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그러한 문제를 조정, 해소하려는 시도가 전개되기도 한다.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의 가톨릭교회 또한 예외가 아니다. 브라질의 경우 1960년대부터 진보적인 관점이 신학이나 사목 실천 안에 자리 잡으면서, 가톨릭교회의 전통적인 구호나 복지 활동을 사회구조적 변혁의 전망에서 새롭게 재편하고 구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이러한 노력은 무엇보다도 가난하고 소외받은 이들을 단순히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보지 않고, 그들 스스로 자신이 놓인 비인간적인 상황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체로 승인한다. 이러한 인식 변화와 더불어, 많은 구호나 복지 활동이 전통적인 내용이나 방식을 넘어서서, 희생자들이 주체로서 스스로 조직하고 의식화하려는 노력을 지원하고, 개별적이 아니라 공동체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려는 지향을 고무하는 방식으로 재편된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브라질과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군사 정권과 밀착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노선을 고수함에 따라, 사회복지활동 역시 전통적인 구호 활동의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못한다. 그러나 메넴 정부 1기 후반부터 정부와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전통적인 구호나 복지 활동을 통해 구조조정의 희생자들과 함께 하려는 노력을 전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펼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적 관점도 개진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까리따스의 활동도 전통적인 내용이나 방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다.

이처럼 두 나라 다 전통적이고 구호적인 활동을 넘어서려는 노력을 보이나 그 시기나 결실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브라질의 경우 60년

대부터 진보적인 신학이나 실천의 흐름 속에서 이러한 노력들이 나타나고, 또 그러한 노력들이 구체적인 까리따스의 활동이나 사업으로 일정 정도 구체화된 반면에, 아르헨티나의 경우 90년대 중반 이후 그러한 노력들이 나타나고, 아직 구체적인 활동이나 사업으로 충분히 자리 잡지는 못한 것 같다. 스트링기니(Stringhini)의 분류를 적용한다면, 아르헨티나의 까리따스 활동은 여전히 구호적 모델과 계발적 모델이 주류를 형성한다면, 브라질의 경우 해방적 모델과 계발적 모델을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특히 90년대 들어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이 강화되고,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면서, 공권력과의 관계 양상 또한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모습을 띤다. 브라질의 경우 군사정권 하에서 인권과 민주화의 기치 아래, 이전 시대의 정권과의 유착 또는 협력 관계를 끊고, 공권력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개진해 왔다. 그러나 80년대에 민정 이양 등으로 시민사회가 활성화되고 사회적 다원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그리고 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사회 정책이 확산되면서, 가톨릭교회는 공권력과의 일정한 비판적 거리를 넘어서, 다양한 형태의 유대와 협력 관계 또한 모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대와 협력이 자칫 사회복지의 책임을 시민사회에 전가하려는 신자유주의적 국가의 직무 유기를 정당화해줄 수 있다는 우려나 비판도 존재한다.

이에 반하여 아르헨티나는 군사 정권 하에서 이전 시대의 정권과의 유착 또는 협력 관계 기조를 유지, 강화하면서, 군사정권의 반민주적이고 인권침해적인 행보를 묵인하거나 적극 가담한다. 그러나 이러한 밀착 관계는 민정이양 이후 교회의 사회적 신뢰 추락과 정체성 위기로 작용하고, 이에 따라 교회는 메넴 정부 하에서 공권력과 거리 두기, 또는 교회 홀로 서기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모색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이나 정치적 부패 등에 대하여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델 라 루아 정부 하에서는 사회 구호와 복지 활동을 중심으로 공권력과의 일정한 유대와 협력 관계를 모색하기도 한다.

셋째, 경제적,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가톨릭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은 교회의 대사회적 신뢰나 영향력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브라질 가톨릭교회의 경우 군사 정권 시절부터 사회구조적 변혁이라는 전망 아래,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까리따스의 활동도 이러한 전망 아래 재편된다. 90년대 이후 사회복지적 욕구도 크게 증대하면서, 가톨릭교회는 이전의 사회구조적 변혁 전망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새로운 상황에 대한 유연성을 일정 정도 제한하고, 사회복지활동도 상대적으로 사회구조적 변혁 전망에 매임으로써, 교회나 까리따스의 활동의 사회적 영향력 또한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반하여, 아르헨티나의 경우 군사적 정권 하에서의 행보로 인하여 사회적 신뢰가 추락하였으나, 90년대 중반 이후 까리따스의 전통적인 사회 구호와 복지 망을 총동원하면서, 어느 정도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한다. 이는 브라질의 경우와 비교할 때 좀 더 명확해진다. 브라질 까리따스의 경우 자원봉사자가 1천여 명이고, 연간 수혜자수가 50여만 명인 반면, 아르헨티나의 경우 자원봉사자가 3만2천여 명이고, 연간 수혜자수는 300여만 명이다. 이는 두 나라 사이의 총인구의 차이를 고려할 때, 아르헨티나 까리따스 활동의 대 사회적 확산이나 영향은 더욱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권혁용/신혜현(2007),「OECD국가의 경제적 제약과 당파적 헤게모니, 그리고 복지국가」, 한국정치학회보, 제41집, 3호, pp.121-146.

김항섭(2003),「신자유주의 구조 조정과 브라질 가톨릭교회의 대응」,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xvi, no. 2, pp.125-167.

김항섭(2005a),「신자유주의 구조 조정과 아르헨티나 가톨릭교회의 대응」,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xviii, no. 1, pp.103-136.

김항섭(2005b),「라틴아메리카 경제위기와 가톨릭교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교회의 비교분석」, 종교연구, 41집, 한국종교학회, pp.211-242.

메리 커닝엄, 비잔틴 제국의 신앙: 콘스탄티노플에서 꽃피운 그리스도교 , 이종인 옮김, 예경, 2006.

에른스트 트뢸취(2003), 기독교사회윤리 , 현영학 옮김, 한국신학연구소.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73), 교회의 선교 활동에 관한 교령 , 정의채 옮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종교사회복지포럼(2002), 시민사회와 종교사회복지 , 학지사.

Souza, José Magalhães de, "Ações Solidárias no Brasil", pp.1-13, http://www.caritasbrasileira.org.

Altemeyer Júnior, Fernando (2005), "Elementos para uma nova compreensão da atuação da Igreja Católica na cidade de São Paulo" in Maria Angela Vilhena e João Décio Passos (orgs), A Igreja de São Paulo: Presença Católica na História da Cidade, São Paulo: Ed. Paulinas pp.505-522.

Arquidiocese de Belo Horizonte (2004), "Ações Sociais Arquidiocesanas: Pesquisa sobre as Ações Sociais da Arquidiocese de BH", pp.1-8, http://www.arquidiocesebh.org.br/acoes_socais/default.asp.

Barros, Raimundo Caramuru (2003), "Gênese e consolidação da CNBB no contexto de uma Igreja en plena renovação in Instituto Nacional de Pastoral (org.)", Presença pública da Igreja no Brasil, Paulinas, pp.13-70.

Cáritas Argentina (2003), "Cáritas: Caridad Transformadora", pp.1-14.

Cáritas Brasileira (2003), Estratégias para Superação da Fome e da Miséria, Brasília.

Cáritas Brasileira (2006), Relatório de Atividades 2005.

Chrispim, Karol Gruchenhka Lupatini (2005), Irmandade de Santo Antônio dos Pobres de Simão Pereira (1867-1873), XXIII Simpósio Nacional de História, Associação Nacional de História - Anpuh, Universidade Estadual De Londrina, 17 a 22 de Julho, pp.1-8.

Conferência Nacional dos Bispos do Brasil (2001), O que é Pastoral Social?: Cartilha de pastoral social, No. 1, São Paulo: Loyola.

Conferencia Episcopal Argentina (1999), "Documento Final de la 79ª Asamblea Plenaria de la CEA", 17 de abril, pp.1-16.

Esquivel, Juan (1999), "Los dilemas de la Iglesia Católica argentina a fines de siglo," IX Jornadas sobre Alternativas Religiosas en America Latina, Rio de Janeiro, 21 a 24 de Setembro, pp.1-18.

Estanislao Esteban Karlic (1997), "Homilía en la misa de apertura de la 74ª Asamblea Plenaria de la CEA", 1 de septiembre.

Giorlano, Fátima (2002), "Ação solidária da Igreja nas entidades sociais" in Seminário da Caridade, Presença da Igreja na cidade de São Paulo: Ação social e testemunho de caridade e solidariedade, São Paulo: Loyola.

Guitiérrez, María Alicia (1998), "Economía, Política y Religión: Un Análisis de

la Argentina de los 90," VIII Jornadas sobre Alternativas Religiosas en America Latina, São Paulo, 22 a 25 de Setembro, pp.1-16.

Instituto Brasileiro de Geografia e Estatística (2000), Censo Demográfico.

Instituto Nacional de Estadisticos y Censos (2001), Censo Nacional de Población, Hogares y Viviendas.

Mezzari, (2002), Angelo Ademir, "Ação e propostas das entidades comunitárias conveniadas com a SAS da PMSP" in Seminário da Caridade, Presença da Igreja na cidade de São Paulo: Ação e testemunho de caridade e solidariedade, São Paulo: Loyola.

Mezzari, Angelo Ademir (2005), "Obras Assistenciais: Expressões da Caridade Cristã" in Maria Angela Vilhena e João Décio Passos (orgs), A Igreja de São Paulo: Presença Católica na História da Cidade, São Paulo: Ed. Paulinas, pp.481-504.

Netto, J. P. (1999), "FHC e a política social: um desastre para as massas trabalhadoras" in Lesbaupin, Ivo et all, O desmonte da nação: Balanço do governo FHC, Petróplois: Vozes.

Obispos del Noroeste Argentino (1999), "En el Año de Dios Padre: Mensaje de los Obispos del NOA", 4 de marzo, http://www.aica.org/aica/documentos_files/Obispos_Argentinos/0_MAO_Noa_1999.htm, pp.1-3.

Oliveira, Anderson José Machado de (1993), "Devoção e Caridade: o cotidiano das irmandades na Corte - século XIX", VIII Encontro Regional De História, Associação Nacional de História - Rio de Janeiro, Rio de Janeiro, pp.1-6.

Silva, Claudia Neves da (2006), "Igreja Católica, assistência social e caridade:

Aproximaçõese divergências", Sociologias, ano 8, n. 15, Porto Alegre, jan/jun, pp.326-351.

Souza, Ney de (org.) (2004), Catolicismo em São Paulo, Paulinas.

Stringhini, Pedro Luiz (2005), "Análise e reflexão sobre os dados do nosso trabalho" in Seminário da Caridade, Presença da Igreja na cidade de São Paulo

http://www.caritas.org

http://www.caritas.org.ar.

http://www.caritasbrasileira.org/

http://www.ibge.org.br

http://www.theodora.com/wfb/.

http://www.unicef.org

http://www.worldbank.org

▌논문투고일자 2008년 11월 10일
▌심사완료일자 2008년 12월 16일

▌게재확정일자 2008년 12월 17일